

“기초수급비 포기하고 더 큰 목표 향해 뛸니다”



제1부-희망 찾기 통일강사서 사업가 변신 박수련씨

“(기초생활)수급비에 목매다보면 평생 수급 인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장은 고단하겠지만 큰 꿈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통일 강사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박수련(여·40)씨의 인생 모토다.

수련씨는 남한에 온지 5년 됐다. 하나원 수료 후 광주로 배정받아 광주와 인연을 맺은 그는 입국 첫 날부터 하루도 편하게 쉬 적이 없다고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받고, 직업전문학교서 컴퓨터를 배웠다. 취업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광주시청에서 행정보조로 1년, 광산구청에서 행정업무 1년, 전남 통일교육센터에서 통일 전문강사로 2년, 지금은 사업가로 새 인생을 걸고 있다.

수련씨는 함경북도 서북단 두만강 인근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수재’였다. 의사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도 청진기에 진학했다. 북한에서도 군(郡)에서 1·2등해야 의대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의대에 다니지는 못했다. 입학 보름 만에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이다. 식량배급이 끊기다보니 굶어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너나없이 배고픔에 아우성이었을 때다. 그래서 굶어죽지 않으려고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군인이라고 별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버텼다. 그는 살고자 장교가 됐다. 그렇게 군에서 10년을 보냈다.

10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중앙은행 은행원이 됐다.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았다. 결혼 8년만에 남편이 사고로 숨졌다. 건축기사였던 남편은 김일성 혁명전적지 공사현장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했다. 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서럽고 허무했다.

국경의 중앙은행 지점에서 은행원으로 일한 탓에 밀수로 들어온 CD를 통해 남한 드라마를 볼 수 있었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의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 탈북을 결심했다. 그리고 남한을 택했다. ‘딸의 미래’ 때문이었다. ‘자식만은 사람 사는 곳에서 키우고 싶다’는 엄마의 바람이 탈북을 감행하게 했다.

은행원이었던 탓에 세관을 알고 정보도 많아 다른 탈북민들보다는 안전하게 탈북을 실행할 수 있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1주일, 그리고 태국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다. 그때 나라 없는 설움과 수모를 겪었다고 했다.

“태국 감옥에서 보름동안 있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오후 4시가 되면 저녁밥을 먹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요. 그 이후엔 아무 것도 주지 않죠. 어른들은 힘들어도 잠지만 5살 딸은 배고프다고 울고, 물레간식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들려 처벌을 받기도 했어요. 그때 느꼈죠. 나라없는 설움과 나라없는 사람이 받는 수모를 말이에요.”

남한에 외서는 초기 1년이 정착 5년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다고 회상했다.

수련씨는 2011년 10월 광주에 집을 매정받았다. 기가 막혔다. 북한에서는 50평 전원주택에서 살았는데 12평 임대아파트에 살려니 말이다. ‘이러려로 한국에 왔다’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되돌릴 순 없었다.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다. ‘살아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미래를 그렸다. 5년이 지났을 때 나의 모습, 10년이 지났을 때 나의 모습을, 그리고 다짐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멀리보고 목표를 세우고 큰 그림을 그리자고.



통일 강사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박수련 씨는 “큰 꿈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인생 목표를 조금 멀리 보고 설계하라”고 조언했다. 수련씨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탈북민들의 사랑방 ‘카페 아르바’에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일성 사망에 의대 못 다니고

10년간 군 생활 뒤 은행에 취직

한국 드라마 보고 딸과 탈북

시청·구청 행정업무, 통일강사 거쳐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바뀐 나날

대학교수 돼 통일정책 조언하고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몇 년이 지난 후 나의 위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테니 힘을 내자고.

“작은 것을 과감히 포기할 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도 깨우쳤다. 그래서 과감히 기초생활수급비를 포기했다. 그리고 취업했다. 14대 1의 경쟁을 뚫고 광주시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했다. 시청 근무와 동시에 서영대학교 야간에 입학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교를 선택해야 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일, 공부, 육아를 병행하다보니 몸은 고단했다. 하루에 수십번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받는 월급이 4대보험을 빼면 고작 102만원정도. 여기에 교통비·식비를 제하면 85만원 안팎이 수중에 들어왔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받는 기초생활수급비가 80만원이었다. 일하라, 공부하라, 아이키우라, 고생해서 받는 월급과 놓고 먹으면서 받는 수급비가 별 차이 없었다. 그래서 탈북민 상당수가 직장을 포기하고 놀면서 수급비에 의존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수련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수급비에 연연하면 수급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몸은 고단할지라도 과감히 취업을 선택했다.

1년간 시청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약이 끝날

즈음에 광산구청에서 라급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이번에도 스스로 서류를 넣고 면접을 통과해 근무하게 됐다. 예산과 계획을 짜고 공문을 다뤘다. 공문을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레 북한식 문법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팀장은 큰소리로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면서 일하느냐?”고 면박을 줬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일을 배워야 했기에 견뎠다.

그럴 때쯤 통일교육원 전남통일교육센터 전문강사 모집 공고가 떴다. 그는 이번에도 누구의 도움없이 서류를 넣고 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알았기에 합격했는지 모른다. 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딸과 함께 생활하려면 강사 월급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이제는 어엿한 사장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수련씨의 꿈은 대학교수다. 그래서 바쁘다. 딸을 키우고 사업을 하면서도 대학원에 다니는 이유다. 전남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그는 대학교수가 돼 통일정책을 조언하고 싶다고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탈북민 차별 경험

전남 탈북민 3명 중 1명 北 출신이라 차별 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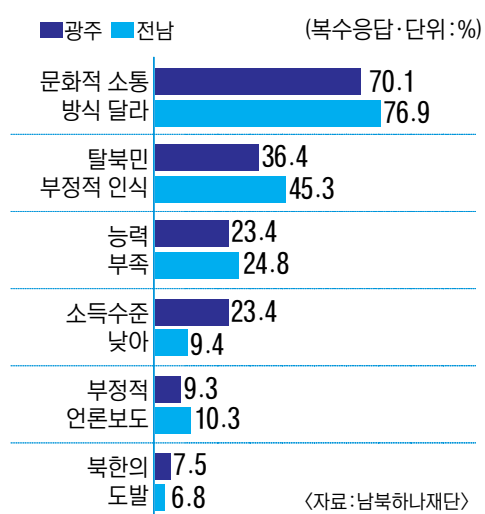
전남지역에 정착한 탈북민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4년 전라지역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나’는 질문에 전남 탈북민 33.1%가 ‘있다’고 응답했다. 광주는 22.5%로 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강한 ‘농도전남’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차별·무시당한 이유로 ▲말투·생활방식·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 달라서(광주 70.1%, 전남 76.9%)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36.4%, 45.3%) ▲남한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23.4%, 24.8%)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라서(23.4%, 9.4%) ▲북한체제와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때문에(9.3%, 10.3%) ▲북한의 호전적 도발 때문에(7.5%, 6.8%) 등을 꼽았다.

‘남한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광주 탈북민 72%, 전남 탈북민 79.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각각 5.1%, 2.3%에 그쳤다.

■탈북민 차별·무시당한 이유



만족도는 여성(79.8%)이 남성(72%)보다, 60대 이상(87.8%)이 중장년층(30대 76.8%, 40대 79.6%, 50대 72.5%)보다, 북한에서의 학력이 높을수록(전문학교 졸업 80.8%, 대졸 이상 78%) 높았다.

광주지역 탈북민들은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54.4%)와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47.4%), ‘북한생활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47.1%)를 들었다. 반면 전남지역 탈북민은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44.6%)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41.4%), ‘일한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39.3%),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36.4%)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전남 탈북민 10명 중 6명(63.4%, 62.9%)은 생활수준이 ‘하류층’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앞으로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답이 각각 74.5%와 68.3%로 긍정적이었다.

가장 우선순위로 지원받고 싶은 분야는 의료(42.9%, 49%), 교육(37.5%, 41.9%), 경제적 지원(37.7%, 26.9%), 취업(22.7%, 36.5%), 주택(19.4%, 13.3%) 등을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변해야 산다...마음을 먼저 열라”

박수련 사장의 남한 정착 제언

통일교육원 전문강사 박수련씨는 탈북민이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하려면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끼리끼리 모여서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몽땅이로 섞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한다고 제안했다. 물과 기름을 예로 들었다. 물과 기름은 가만히 두면 평생을 따로. 억지로라도 부대껴야 섞이게 된다. 탈북민과 남한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탈북민 센터를 따로 만들게 아니라 동네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북민 당당을 통일부보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

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또 “배우고 익혀 일하라”고 권했다. 세금을 내야 떼뺏해지고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남한은 자신이 하는 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생각을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씨는 끝으로 남한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탈북민은 같은 민족인만큼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해달라고. 1~2년 도와준 뒤 변하지 않는다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욱 관심을 두고 차분하게 함께 가자고.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